

## 마사회 설립목적에 부합한 전략적 대응활동 필요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하 추진위원회)는 3월 3일(금) 대표자 조찬모임을 갖고, 지방교육세 환원 등 2005년도 추진위 활동 결과보고와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서정의 위원장은 현재 농축산업단체가 한·미 FTA 협상 추진과 맞물려 농업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진위에서도 이와 연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마사회 설립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마사회의 수익금은 농축산업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레저세인하 등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마사회가 납부하고 있는 지방교육세가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학교급식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향후 추진위원회는 건전 경마산업 발전으로 마사진흥 및 축산·농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마사회 혁신 방안들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그 동안 추진위가 전개한 지방교육세 환원활동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08년까지 6%, '09년부터는 4%로 인하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추진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은 지난 2월 16일 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된 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